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세상은 혼란하고 시끄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선교지의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걸음씩 내딛습니다. 계신 곳에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며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

🌟 파시피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파시피코 교회는 조금씩 계속 성장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새로운 교인이 계속 오고 등록하고 있습니다. 호세 목사는 4년차 목회에 접어 들었고, 교회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파시피코 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하는데 현재 6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교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한글 수업중인 최형진 선교사)

🌟 마약 재활센터 사역

마약 재활센터는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둘째와 넷째 주 금요일에는 남/여 구분하여 성경공부를 합니다. 입소자들도 성경공부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입소자들 중에는 마약에 너무 심각하게 중독되어 계속 혼잣말을 하고 큰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아직 약기운이 빠지지 않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입소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 센터에 들어오게 되어서 다리의 살이 굼아가고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그 어떠한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 주에 약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바르는 연고와 붕대를 주고 왔지만 이번주에 가서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처가 더 깊어 졌다면 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입소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제가 재활센터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14:6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알고 믿기를 기도합니다. ♥



입소자들이 생각보다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잘 몰라도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이번주에는 16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 벤디시온 교회 어린이 사역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어린이 사역에는 약 3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은 가진 것이 없기에 결국 이렇게 산 위에까지 밀려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책갈피를 만들고 색칠하는 것조차도 다들 즐거워합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점심 식사는 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역을 돕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식사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주일학교 교재 보급 및 교사 훈련 사역

주일학교가 없는 이곳 티후아나에 주일학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지난 5월 말에 30여명이 줌 미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알레그리아 선교회의 주도로 미팅을 하였고 이제 이곳 티후아나에도 본격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토)에 이번에 나눠줄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현지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7개의 현지 교회가 참여하기로 하였고 자원하는 교사들이 약 3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이 잘 준비되어 진행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교재를 받고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 저희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일정 기간 후에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재훈련하고, 각 교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암송 대회나 말씀퀴즈 대회 등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선교센터 건축 승인.

지난 번에 말씀드린 선교센터 건축에 대해서 GP선교회에 프로젝트 승인 요청을 하였고, 프로젝트가 승인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 되어야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꾼들과 계약을 해도 제 날짜에 잘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차로도 오기 쉽지 않은 곳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곳에 다니기 위해서는 4륜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형진 선교사도 커피브레이크와 한글학교와 요리교실등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우버를 타기에는 우버가 너무 험하고 차비도 너무 비쌉니다.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 센터 건축을 위해 후원 하실 때에는 꼭 **“건축후원”** 이라고 표시 해 주셔야 합니다. ♥

✦ 설교 / 요리교실

오는 토요일에는 재활센터에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Rey de Gloria 교회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Dios Habla Hoy 교회에서 요리 교실을 진행 하였습니다. 교인들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한류에 힘입어 한국 요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육볶음, 김치볶음밥, 그리고 피클을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너무 맛있고 재미있다고 또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현지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에 임합니다. ♥



(보족한 돌들이 많아 제 차가 못 올라갑니다.)



예수사랑 사람사랑 예수증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2)

🌟 네 딸 이야기.

큰 딸 하연이는 주경야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는 교회 봉사도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 건강 상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진이는 8월에 칼빈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보충 수업과 함께 잠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숨을 잘 고른 후에,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은이도 순장 리더와 올 한 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 지길 기도해 주세요.

막내 하민이는 지금 미국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교사라는 것이 아이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기도제목

- ✓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 현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 ✓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소서.
(재활센터, 벤디시온 교회 어린이사역, 한글학교, 어린이 성경교재 보급 및 교사 훈련, 파시피코 교회 방과후 학교, 선교센터 건축)
- ✓ 파시피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호세 목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 ✓ 선교센터 건축(5만불)과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 ✓ 6/20, 21에 있을 설교와 계속되는 재활센터 설교에 성령님 불드소서.
- ✓ 6/27에 있을 교사(30명) 훈련이 잘 진행되어 교사들이 든든히 서게 하소서.
- ✓ 네 딸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 ✓ 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후원계좌 한국 : 990-090819-582 하나은행

미주: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Global Partners USA

T: 714-774-9191

(GP) 이병호 / 최형진